

위기에도 노조 파업 깃발... 완성차업계 임단협 '먹구름'

노조 여름휴가 후 강경투쟁 예고
실적 악화에도 노사 입장차 여전히
한국지엠, 임금 인상 파업 앞뒤
르노삼성, 민노총 가입·파업 준비



르노삼성노조 임금협상 쟁취 결의 집회.

국내 완성차업계가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쌍용자동차를 제외하면 모두 '세계 제로' 상태여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까지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계는 여름 휴가 이후 본격적으로 임단협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노조가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완성차업계 만형인 현대차노조는 지난해 무파업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품질 혁신을 선언했지만 올해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파업 등 투쟁을 진행하며 강경 노조 대명사로 불렸던 생산직 노조가 조용히 임단협을 준비하는 반면, 판매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서울·경기·인천·울산·경남·전남·

충남·충북·제주 등 100개 대리점, 5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다른 지역 조합원들도 지방노동위 조정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파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신차 출시를 통해 내수 시장 공략으로 버텼다는 점에서 판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과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사측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글로벌 판매 증가로 생산량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은 전체 판매실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77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80%(6225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해 9월에도 전면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을 또 다시 준비하고 있다. 상급단체의 지원을 통해 임단협 교섭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달 24일 임시총대의원대회를 열어 오는 9~10일 민주노총 산별노조 가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키로 의결한 상태다. 르노삼성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선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66.7%)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 3월에도 노조 집행부는 민주노총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부 대의원의 반대로 가입을 보류한 바 있어 결과는 안갯속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민주노총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노사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초 르노그룹은 신차 XM3의 유럽 수출물량을 르노삼성 부산공장에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노사관계 악화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수출 물량 배정

이 불발될 경우 부산공장 가동률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될수록 위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를 잘 버텼던 업체들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개소세 인하폭 축소 등으로 하반기 판매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3~7월 내수시장에서 매출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 결과 상반기 국산차 내수 판매는 80만8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 하지만 8월 내수 판매는 11만18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개소세 인하 정책과 신차 출시 등으로 내수 판매가 상승했지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자동차 업계 노조 파업이 진행될 경우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완성차 파업은 최근 위기에 빠진 부품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U+, '에이프릴' 직장인 체험예능 공개

10일 16시 'U+아이돌Live'서 첫방
본편 5회·비하인드 1회 총 6편 제작



'썬아이돌 워크숍' 포스터.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6인조 걸그룹 '에이프릴'의 직장인 체험 예능 '아이돌 워크숍'을 10일 오후 4시 'U+아이돌Live' 앱을 통해 단독 첫 방송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 워크숍'은 LG유플러스가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로 아이돌이 연수원에 가서 회사원처럼 워크숍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빅톤', 두 번째 '골드차일드', 세 번째 '은앤오프'에 이어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에이프릴'이 출연한다.

에이프릴은 '아이돌 워크숍'에서 특유의 순수하면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을 뽐냈다. 가수 활동 외에도 연기면 연기, MC면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에이프릴인 만큼 영역별

뷰, 집중력영역 '추억의 포토존 게임', 에너지영역으로 농구 슛 게임과 손가락 펀치, 병뚜껑 날리기 등을 수행한다. 협동심영역에서 진행된 지압판 댄스에서는 지금까지 숨겨둔 몸개그를 방출하며 활영장을 화기에애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아이돌 워크숍'은 본편 5회와 비하인드 1회로 총 6편으로 제작됐다. 화·목 오후 4시 U+아이돌Live를 통해 무료로 독점 공개된다.

U+아이돌Live는 LG유플러스 고객뿐 아니라 타사 고객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윈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해 내려받아 이용 가능하다. 'UHD2'나 'UHD3'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U+tv 고객은 IPTV용 'U+tv 아이돌Live' 서비스로 TV에서 더 크고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채윤정 SI 전문기자 echo@



에스토니아 랠리서 열린 '2020 월드랠리챔피언십' 4차 대회에서 현대자동차 'i20 Coupe WRC' 랠리카가 달리고 있는 모습.

현대차, 'WRC 에스토니아 랠리'서 우승

현대자동차가 포물러원(F1)과 함께 세계 최정상급 자동차 경주대회로 꼽히는 2020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 최초로 열린 에스토니아 랠리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해당 대회에서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한 제조사로 이름을 올렸다. 6개월만에 다시 재개된 랠리이자 1973년 WRC가 시작된 이래 600번째 라운드에서 차지한 우승으로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했다.

현대차는 4~6일 사흘간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개최된 WRC 4차 대회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이하현대팀)' 소속 오토 타나 선수와 우승을, 팀 동료 크레이그 브린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2020 WRC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인해 지난 3월 멕시코에서 열린 3차 대회를 끝으로 약 6개월간 경기가 중단됐다. WRC 주최측은 경기 재개를 위해 남은 대회 일정을 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에스토니아 랠리가 역대 최초로 WRC 일정에 포함돼 4차전으로 개최됐다. /양성운 기자

포스텍 홀딩스,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 결성

투자 생태계 활성화 등으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회사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시행에 들어간 '벤처투자법'에서 민간중심의 초기투자생태계 확대를 위해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한 이후 첫 사례다.

벤처투자법은 창업투자회사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을 창업기획자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출

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쉽고, 초기창업자 투자의무 및 상장사 투자비율이 완화되는 등 투자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 홀딩스는 2017년 1월말 중기부에 창업기획자 승인을 받은 뒤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원을 투자했다. 아울러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LGU+, 전국 매장에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로부터 고객 및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직영점 및 주요 대리점 총 1000여 매장 상담석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비말차단 가림막은 아크릴 재질의 투명 가림막으로 고객과 직원이 마주보는 좌석 사이에 설치돼 상담 중 비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한다. 가림막 하단에는 스마트폰,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통로를 만들어 요금 납부, 개통 등의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월 2회 주기적으로 매장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방문 고객 열 체크 및 출입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윤정 SI 전문기자